

0818(목) 예레미야 42-45장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?

오랫동안 갇힌 신세였던 예레미야는 자유를 얻었습니다.

바벨론의 호의 속에 거취를 정하게 된 예레미야는(40:4-5)

편안한 길보다 빈민들, 남은 자들과 함께 하길 택했습니다.

총독이 암살되면서 선지자의 고난도 다시 시작됩니다.

암살자 무리를 제압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된 요하난은

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(42:5-6).

그럼에도 그들은 이미 이집트 행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(41:17),

기도는 일종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습니다(42:20).

그들은 총독 그다랴의 불미스런 죽음에 대해

바벨론이 책임을 묻거나 보복할까 두려웠습니다(41:18).

그들이 보기에도 이집트는 안전하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(42:14).

그러나 이집트 땅은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.

그들은 그곳에서 신앙도 생명도 잃게 될 것입니다.

(42:16, 43:11-13, 44장)

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부탁한 요하난과 공동체는

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부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(43:2).

그들은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<평강> 예언을 듣고자 했습니다.

예레미야는 다시금 거짓선지자로 매도되는 고난을 겪으며

바룩과 함께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(43:6).

피난처요 낙원처럼 보이던 곳이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.

(창12:10, 13:10, 샷19:10, 삼상21장, 예3:13)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?

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땅이 정말 안전한 곳입니다.

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?

① 안정과 안전을 누릴만한 장소, 인물, 특정한 무언가가 있습니까?

② 그것을 통해 부족함 없는 완벽한 안정과 안전을 누렸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예레미야 42-45장